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5년 8월 5일(화) 10:00 이후

담 당 : 조사연구팀 전 종 윤 과장대리
(990-7093)

부산지역 강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 인식 조사결과

중견기업 도약 원하지만 혜택 축소는 큰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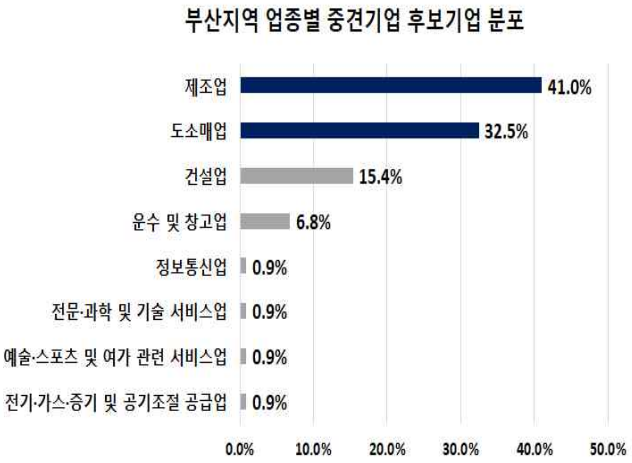
▶ **지역 중견기업 후보군 64%, 성장 기대보다 정책지원 사각지대 진입 부담 더 커**
▶ **중소기업 관련 세제혜택 축소 우려 크고, 조달시장 참여제한 및 규제장벽도 부담**
▶ **중견기업 성장까지 20년 이상 소요.. 중견기업 진입 유도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정책지원 혜택 축소와 각종 규제 강화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5일(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의 70% 이상을 달성한 지역 내 중견기업 후보기업 116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지역 강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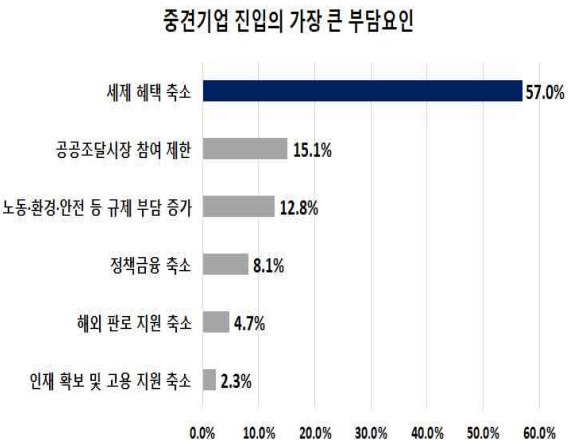
업종별 중견기업 진입 매출액 기준은 운수업·정보통신업 1,000억 원, 건설업·도소매업·제조업 1,200억 원, 1차금속·전기장비 등 일부 제조업 1,800억 원 수준이다.

부산지역 중견기업 후보 116개사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48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도소매업 38개사, 건설업 18개사, 운수·창고업 8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본과 설비 투자가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상 개별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견기업 후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독자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온 강소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중견기업 진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3.9%가 여전히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로 향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견기업 진입 시 부담요인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가 5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 진입 시 고용·투자·연구개발 등 관련된 세제 혜택이 축소되며, 법인세 최저한세율 등 세제 기준에서도 중소기업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15.1%), 노동·환경·안전 등 규제 부담 증가(12.8%), 정책금융 축소(8.1%), 판로확보 지원 축소(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성장 지원에 필요한 정책 방안으로는 중견기업 세제 혜택 확대가 60.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견기업 전용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31.4%), 규제 완화(5.8%) 등의 순이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은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등 여러 면에서 이점도 있지만, 실제 기업들은 정책지원 혜택 축소 부담을 상쇄하긴 어렵다" 고 본다면서, "중견기업 성장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후보기업들의 중견기업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첨 부 : 부산지역 강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1부.

기획조사

부산지역 강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 인식 조사

2025. 7.

부산상공회의소

〈조사개요〉

1. 조사 명

- 부산지역 강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 인식 조사

2. 조사 목적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우리 회의소는 부산지역 주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진입에 대한 부담, 기대효과 및 지원 방안 등을 조사하여 기업 성장 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조사를 시행함

3. 조사 대상

- 매출액 기준 부산지역 중견기업 후보 기업 116개 사

  ※ 중견기업 기준 매출액 70% 이상 달성 기업

4.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설문 조사
- 조사표 회수 용역: 리서치한국

5. 조사 내용

- 기업 성장과 중견기업 진입 예상 시기
- 중견기업 성장에 대한 부담 수준 및 요인
-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기대효과 및 지원방안

※ 보고서 내 통계치는 전수조사가 아닌 조사 응답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됨

Ⅰ 부산지역 중견기업 후보기업 현황

Ⅰ 부산지역 중견기업 후보기업 현황

■ 부산지역 중견기업 후보기업 총 116개 사

■ 제조업 48개 사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38개 사, 건설업 18개 사, 운수 및 창고 8개사 순

■ 제조업 세부업종은 1차 금속이 14개 사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 7개 사, 음·식료품 5개 사 순

1. 부산지역 중견기업 후보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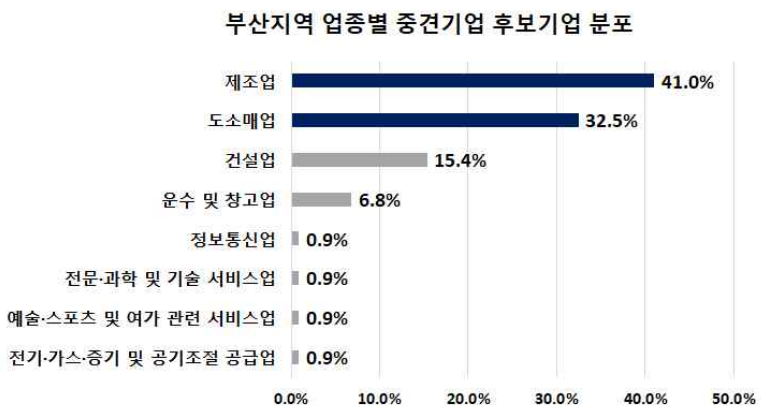
○ 부산지역 중견기업 후보기업 총 116개 사

- 매출액 기준 '부산지역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116개 사로 확인되었으며 **지역 전체 기업(매출액 25억 원 이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 수준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현 시점에서 중견기업 달성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매출액,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하며 지역 경제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음

> ※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주요 기준 항목은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금액 비율 등이며 특히 **업종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의 약 70% 달성을 기준으로 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8개 사로 가장 수가 많음

- 이어 도소매업 38개사, 건설업 18개 사, 운수 및 창고업 8개 사, 정보통신업 1개 사,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개 사,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개 사,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개사 등의 순



○ 제조업 세부 업종은 1차 금속이 14개 사로 가장 많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차 금속이 14개 사로 가장 많고 이어 전기전자 7개 사, 음·식료품 5개 사, 고무·화학 5개 사, 기계장비 4개 사, 신발 및 의류 3개 사, 자동차부품 3개 사, 금속 가공 2개 사, 조선기자재 1개 사, 기타 4개 사 등의 순

2. 주요 중견기업 후보 기업 세부 현황

○ 제일일렉트릭(주)

- 제일일렉트릭(주)는 1955년 창립된 이래 부산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향토기업으로 IoT 배선기구를 비롯한 전자·전기 부품 분야를 영위 중임
- 2020년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월드클래스플러스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부산형 앵커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업 경쟁력을 인정받은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음
- 기존 배선, 분전반 등 주력 분야에서 벗어나 IoT, 스마트배선기구 등으로 기술적 도약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중견기업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 케이티이

- 케이티이(주)는 1979년 설립되어 기술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선도기업으로 선박용 전장품과 제어시스템 관련 사업을 영위 중임
- 선박의 친환경화와 스마트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의 전략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통합제어시스템과 선박 운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쉽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또한 연료전지 및 개질기 제어 기술을 활용한 수소 사업과 조류 기반 에너지 설비 등을 개발해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 전환이 중견기업 도약의 기반이 되고 있음

❍ DRB오토메이션

- DRB오토메이션은 1990년 동일고무벨트(주) FA 사업부로 시작되어 2001년 동일파텍(주)으로 분사되었으며 현재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영위 중임
- 로봇시스템, 레이저&FSW, 프레스자동화, 물류시스템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용접, 그라인딩, 적재, 프레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을 통해 자동화 생산 라인 시스템 구축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4차 산업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

Ⅱ 부산지역 중견기업 도약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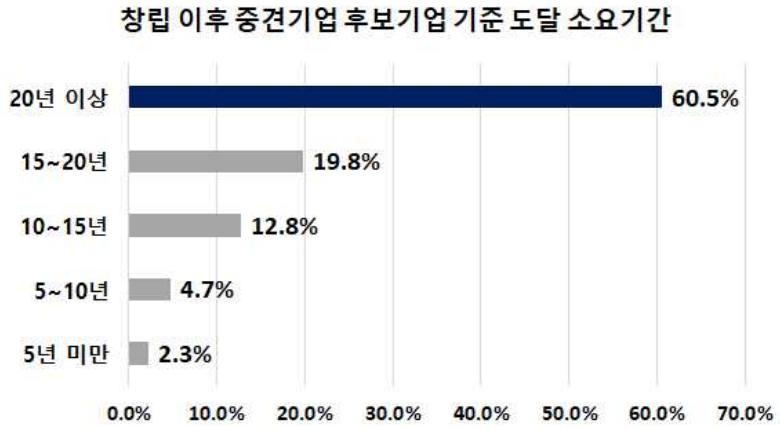
Ⅰ 기업 성장과 중견기업 진입 예상 시기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걸리는 시간 **'20년 이상'** 소요
■ 중견기업 성장 위해 가장 중요한 경영 전략은 **'안정적인 내수·수출 판로 확보'**
■ 현재 성장 속도 고려한다면 중견기업 진입은 향후 **'5~10년' 전망** 가장 많아

1.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 도달 소요 기간

○ 부산지역 중소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성장까지 '20년 이상' 소요

-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창립 이후 **'20년 이상'이 60.5%**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함



- 이어 '15~20년' 19.8%, '10~15년' 12.8%, '5~10년' 4.7%, '5년 미만' 2.3%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단기간의 빠른 성장보다는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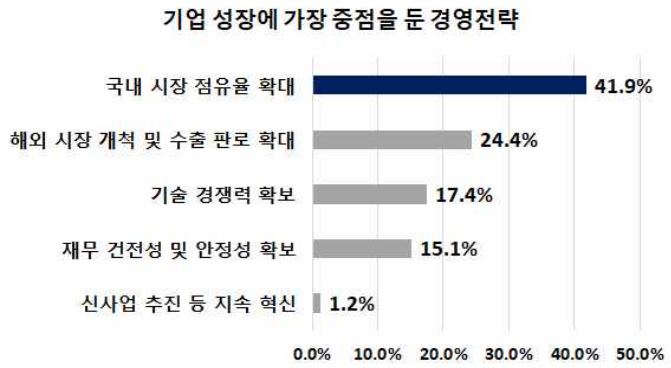
> **※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
> - 주요 평가 항목은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금액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업 성장의 소요 기간이 대체로 긴 이유는 **전통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낮은 부가가치와 제한된 성장성, 기술력 축적과 시장 확대에 장시간 소요되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2. 기업 성장 중점 전략

○ 지금까지 기업 성장의 최우선 전략은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장 중점을 둔 경영 전략은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4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어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판로 확대' 24.4%, '기술 경쟁력 확보' 17.4%, '재무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15.1%, '신사업 추진 등 지속 혁신' 1.2%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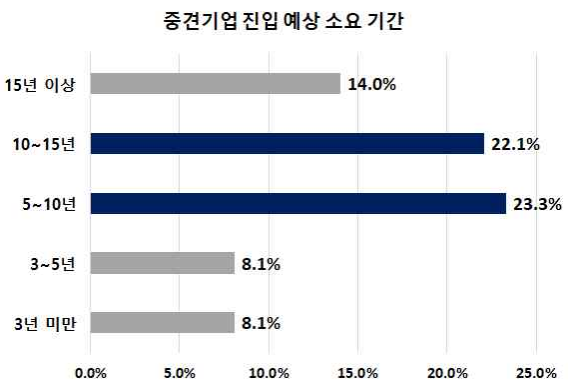


- 기업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기술력이나 신사업 추진 등의 혁신 역량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력 사업에 집중하고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확인됨

3. 중견기업 진입 예상 시기

○ 중견기업 진입 예상 시기는 '5~10년' 내 전망 비중 가장 높음

- 현재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중견기업 진입 예상 시기는 '5~10년' 23.3%, '10~15년' 22.1%로 나타나 중기적 관점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15년 이상' 14.0%, '3~5년' 8.1%, '3년 미만' 8.1%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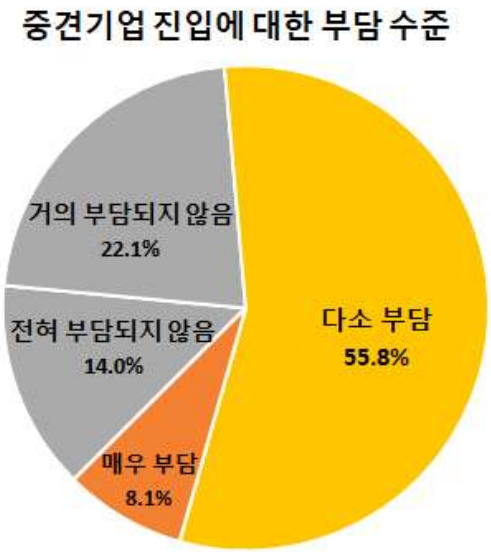
II 중견기업 진입에 대한 부담 인식

■ 중견기업 진입은 도약의 기대보다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부담이 더 큰 상황
■ 중견기업으로 진입 시 가장 부담되는 사항은 **'세제 혜택 축소'**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됐지만, **기업 부담 완화에는 역부족**

1. 중견기업 진입에 대한 부담 인식 수준

○ 중견기업 진입은 도약의 기대보다는 정책 사각지대로 향한다는 부담 더 커

- 중소기업 시절에 받던 세제·자금·판로 등 정책적 혜택 축소를 우려하면서 중견기업 진입에 부담을 가지는 기업이 반수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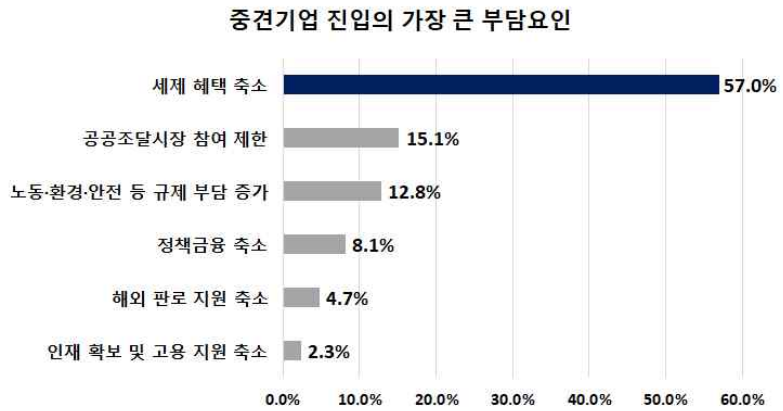
- 중견기업 진입이 부담된다는 의견은 63.9%('매우 부담' 8.1%, '다소 부담' 55.8%)였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36.1%('거의 부담되지 않음' 22.1%, '전혀 부담되지 않음' 14.0%)로 확인됨
- 도약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업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사각지대에 들어선다는 부담감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중견기업 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기업의 부담감은 높은 상황

2. 중견기업 진입 부담 요인

○ 중견기업으로 진입 시 가장 부담되는 사항은 '세제 혜택 축소'

- 축소되는 지원책 중 가장 부담되는 사항은 '세제 혜택 축소'가 57.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 15.1%, '노동·환경·산업안전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 12.8%, '정책 금융 축소' 8.1%, '판로 확보 지원 축소' 4.7%, '고용 지원 축소' 2.3% 등의 순



-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경우, 고용·투자·연구개발(R&D) 등과 관련된 각종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시절과는 다른 불리한 세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조세 부담 증가가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지적

○ 공공조달시장에서도 중소기업 대비 시장 참여 제한

- 지역 기업의 주요 판로인 공공조달시장에서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중소기업 제한경쟁 등의 혜택을 받지만,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수의계약 대상에도 제외되는 등 시장 접근성이 크게 떨어짐

○ 지원은 사각지대, 규제는 대기업 수준

- 노동·안전·환경 등 전 분야에서 강도 높은 규제와 의무가 주어지는 반면 기업 부담에 대한 정책적 완충 장치는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점 또한 주된 부담 요인으로 나타남

Ⅲ 중견기업 성장 지원방안

■ 중견기업 성장 시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기업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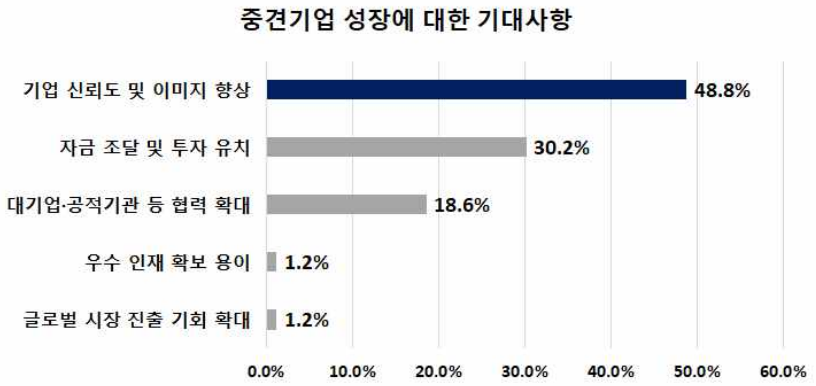
■ 단기 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 성장을 지원할 실질적 정책 강화로 전환 필요

■ 중견기업 세제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 등으로 지속 성장의 토대 강화 필요

1.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기대 사항

○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기업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향상' 가장 기대

-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가장 기대하는 영향은 '기업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향상'이 4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어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30.2%, '대기업·공적기관 등 협력 확대' 18.6%, '우수 인재 확보용이' 1.2%,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1.2%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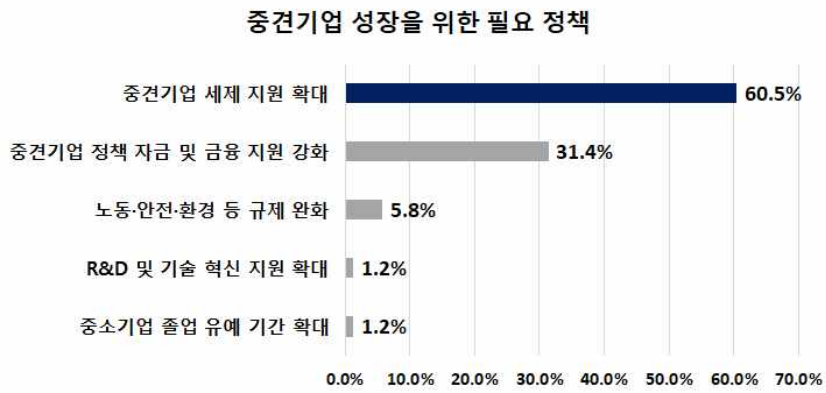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은 단순한 매출 규모의 증가를 넘어 '신뢰성 있는 기업'으로의 정체성 변화를 의미하기에 시장 신뢰성 확보, 거래 기회의 확대, 금융권 접근성 향상 등 비가시적 영역에서의 기존 중소기업이 부족했던 기업 역량 확보를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사료됨

2.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방안

○ 졸업 유예기간 연장 등 단기 지원에서 실질적 기업지원으로 정책 전환 필요

- 중견기업 성장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강화가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견기업 세제 혜택 확대'가 6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어 ‘중견기업 정책 자금 및 금융 지원 강화’ 31.4%, ‘노동·안전·환경 등 규제 완화’ 5.8%, ‘R&D 및 기술 혁신 지원 확대’ 1.2%, ‘중견기업 졸업 유예 기간 확대’ 1.2% 등의 순



- 중견기업으로의 적극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세제 혜택의 실익을 약화시키는 최저한세율 폐지 또는 인하, 각종 세제 지원 대상 기준 및 공제율 확대 등 중견기업이 직접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 지원 강화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중견기업 최저한세제도 -「법인세법」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7%인 반면 중견기업은 8%에서 최대 17%까지 적용되면서 조세 부담을 높이고 각종 세제지원의 실익이 상실되는 원인으로 작용
- 또한 R&D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은 R&D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최저한세와 별도로 분리되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중견기업은 R&D 비용 역시 최저한세에 포함되어 별도로 공제를 받지 못해 조세 부담이 가중됨

-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등의 단기적 지원과 함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약대가 될 수 있는 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